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4. 24(화) / 총2매(본문1)</b>
<b>담당 부서</b>	항공산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박명주, 사무관 홍승희, 주무관 홍창빈 • ☎ (044) 201-4231, 4230
	항공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김준성, 주무관 송규상 • ☎ (044) 201-4189, 4190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휠체어 장애인 “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.” 보도관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장애인·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권 구입-공항 이용-항공기 탑승 등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 거친 **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\***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\* (예) 장애인·노약자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, 탑승교 배정 불가 시 휠체어 리프트 제공 등

○ 이미 **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\***(안호영 대표발의, '18.3월)되어 있으며, 항공사·공항 실태조사, 해외 입법례 조사, 장애인단체·소비자단체 및 항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기준을 **확정·고시**할 계획입니다.

\* (항공사업법 제61조·제84조 개정안)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제공, 탑승·하기 시 서비스 제공, 종사자 훈련·교육 등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, 위반 시 사업자 과태료 부과

○ 또한, 기준 마련 전까지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, 휠체어리프트 제공, 탑승거부 금지 등 **항공사·공항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**할 예정입니다.

\* 원주·사천·군산공항은 공항 구조 상 탑승교 이용이 불가하여 항공사·공항 공사에서 휠체어리프트를 공동 구매하여 제공할 예정(5월 말)

< 관련 보도내용 (4.24, 한겨레) >

◆ 휠체어 장애인 “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”

- 큰맘 먹고 아내와 제주 가려던 70대 “도울 인력 없다” 항공사 거부로 포기, 인권위, 리프트 설치 등 권고했지만 민간기업 이행의무 없어 개선 험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2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